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9 Winter Vol.59



**SCHAEFFLER**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9 Winter Vol.59



세플러원을 모바일로도 만나보세요.

발행일 2020년 1월 15일(통권 제59호) ● 발행인 이병찬 ●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02. 311. 3019 ● 기획·디자인 에이플랜 (TEL)070. 7570. 0605 ● 출력·인쇄 NOVA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NTENTS

세플러원은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입니다.

6

**신년사**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병찬

10

**테마 즐기기**  
<세플러 + 원>이 이어온  
시간들

16

**백 투 더 픽처**  
현재에 과거를 잇다

18

**테마 인터뷰**  
은으로 대를 잇다  
with 이동희 명인과  
아들 이동현

22

**테마 돋보기**  
델 테크놀로지스  
2030 미래 전망 리포트  
'퓨처 오브 커넥티드 리빙'

26

**어서와! 리더는 처음이지?**  
신구(新舊)의 조화를 이끌  
변화의 리더  
with 김형덕 이사

30

**팀과 함께**  
“가상현실 속에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with 설비보전팀

34

**식사를 합시다**  
매콤 달달한 식사와  
깊고 진한 차 한 잔  
<차담소>

38

**덕후열전**  
힘들게 오르지만 에너지가  
충전돼요!  
with 창원3공장 등산동호회

42

**같이의 가치**  
사랑의 연탄봉사  
“겨울이 따뜻해요!”

46

**Schaeffler FOCUS**  
5G AINS

50

Schaeffler Highlight

53

Schaeffler NEWS

55

Mail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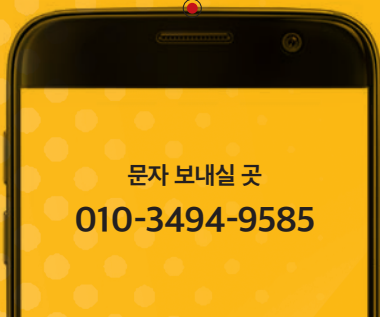
# 0 사보. X 잘 받아보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오

죄송합니다. **사우님의 주소**를 **문자**나 아래의 **큐알코드**로 들어와 남겨주세요.  
즉시 반영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희망 배송지 변경 등으로 주소 수정이 필요하신 분도 문자나 큐알코드를 이용해 알려주세요. ★

**나와 동료, 셰플러코리아의 이야기가 담긴  
우리의 사보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  
더 나아가 완전 달라 보이는 것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결과 속  
겨울과 여름  
남자와 여자

천천히 훑아보면 이음선이  
분명 보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바로 내일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보면 어제의 나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멋진 2020년을 기대한다면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신  
년  
사

新  
年  
辭

##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움’이란 우리에게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새로운 십년을 연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고 설레는 2020년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절박함이 세플러코리아의 2019년을 가장 역동적인 해로 만들었습니다. 회사와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같이 했던 모든 임직원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양극화 심화 현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도 예외 없이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어중간한 기업은 빠르게 도태되는 기업군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인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인공지능화에 의해 산업자체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운영방식을 선점한 국가 및 사회, 기업으로의 1차적인 부의 집중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동하고 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모든 참여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시점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회문화, 기술경제의 기준이 재 수립되는 다음 10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몇 년간 우리는 남들 보다 먼저 나가기 위하여 Korea Transformation으로 명명된 세플러코리아의 일관된 전략목표 하에 보다 주도적으로 제도의 혁신, 사업구조의 변경, 목표제품의 개발 운영방법의 변경을 한 발 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은 미래 10년을 주도해 나가는 상위 1% 선도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점을 찍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혁신적 사고와 활동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행계획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는 조금 더 명확한 네 개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번째 목표는, 향후 10년동안 사라지지 않을 사업을 최소한 총매출의 20% 이상을 항상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목표는, 새롭게 개발되는 비즈니스의 매출 기여금액이 연간 총 사업 규모의 2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목표는, 전기차, 인공지능, 5G, IOT, 로봇 등 차세대 핵심사업군에 종사하는 직간접 인력이 총종업원 수의 20%는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네번째 목표는, 아무리 적어도 20개 이상의 혁신적 제도가 입안 실시되어 기업성과에 걸맞은 제도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네 개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세플러코리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은 세플러코리아의 정신과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해 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입해 왔던 과업의 수행과 성취에 앞서 우리의 근간이 되는 Schaeffler Korea Spirit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풍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계승발전해야 하는 것들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에 항상 행복함과 희망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마칠까 합니다. 2020년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병찬**



25 Years

Mr. Byung-Chan Lee



세플러 + 더하기

테마 즐기기

글 홍주희 + 사진 박성희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Global Min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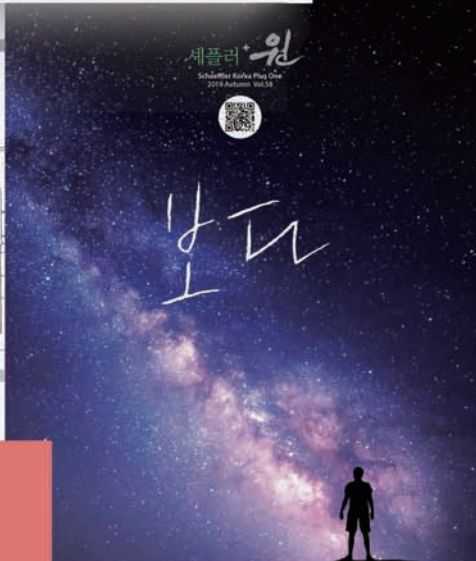


수업에 휴즈였던 이계를 활짝 열고  
새하얀 눈길을 달려볼까요?

In Schaeffler  
For Life  
The Communities

# <세플러 + 원>이 이어온 시간들

세플러코리아 사보 <세플러+원>은 2005년 봄호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보는 계절에 따라 한 해에 네 번씩 발행하는 계간지로 지금까지 총 59권이 만들어졌죠. 년도 별로 책을 포장하고 있는 표지는 각각 다르지만 그 안에 세플러인들의 웃음과 소식, 사연과 감동은 한결 같습니다. 서울과 안산, 전주와 창원에 있는 2천여 명의 세플러인들을 잇고 또 이어 견고한 이음줄을 만들어 낸 사보. 그간 묵묵히 세플러코리아의 소통창구가 되어준 <세플러+원>을 되짚어 봅니다. 세플러코리아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 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은 <세플러+원>이 발행된 지 15년 되는 해입니다. 15년 동안 만들어진 사보는 모두 59권이네요. 가만히 앉아 한 권, 한 권을 다 들여다보고 싶지만 지면이 협소해 한 해에 한 권씩만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표지와 기억에 남는 코너들을 소개합니다.

## 2005 Winter

**표지** 2006년을 여는 내용들로 가득한 2005년 겨울호입니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의 모습을 모아 모자이크처럼 디자인했네요. 세플러코리아를 이끄는 주역들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이겠죠!

**내지** 2006년이 병술년이었군요. 개띠인 사우들이 나만의 그릇을 만들고,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네요. 한 해가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은가 봅니다.



## 2006 통합특집호



**표지** 2006년은 LuK, INA, FAG가 세플러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표지도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 이미지로,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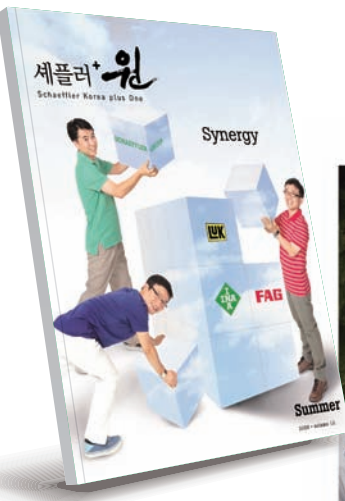
**내지** 특별한 해인 만큼 내지도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세플러 그룹의 현황과 중국에서 근무하는 사우의 근황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눈에 띄네요.

## 2007 Spring

**표지** 열정이라는 테마를 일러스트로 표현했네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우들의 모습이 열정이라는 단어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내지** '세플러 정반합'이라는 꼭지명으로 두 사우가 서로의 업무를 일일체험해보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고충을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2008 Summer



2009 Autumn



**표지** 인물과 배경을 합성하는 형식으로 표지를 구성했습니다. 합성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지만 배경 선택에 제약이 없어 표현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죠. 세 조직의 통합을 또 한 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내지** '해피투게더'라는 코너네요. 창원공장에서 어버이날 효도관광 행사가 있었나 봐요. 바쁜 사우들을 대신해 부모님을 모시고 자수정 동굴여행을 떠났네요. 가족까지 챙겨주는 회사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2010 Winter



**표지** 스타일리시한 남녀사우가 출연하네요. 도서관으로 보이는 일러스트 배경에서 책과 노트북을 들고 배움을 꾸준히 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지** 사우들의 퇴근 후 3시간을 따라가 보는 코너예요. 매일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딴 사우를 소개하고 있네요. 나의 퇴근 후 3시간은 어떤지 되돌아보게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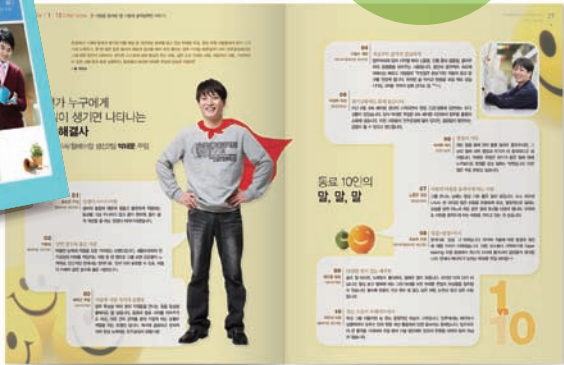


**표지** 흡사 부자지만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는 표지입니다. 사보 테마가 '시간관리'여서 다이어리와 폰으로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표현된 것 같아요. 시간관리, 정말 중요하지요!

**내지** '베어링을 찾아서'라는 꼭지명이에요. 연구소에서 베어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어요. 안팎에서 베어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 2011 Spring

# 2012 Summer



**표지**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한 사우들의 다양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린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더 많은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갑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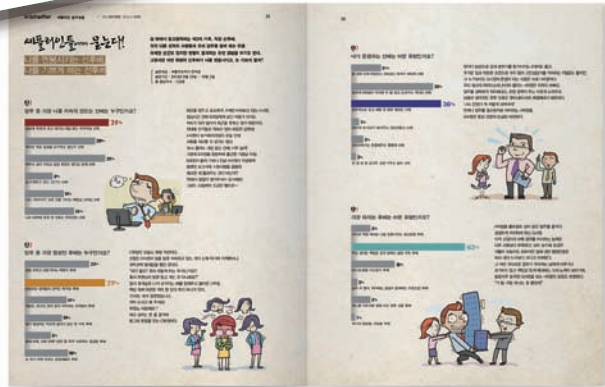
**내지** 기억하세요? '대10 인터뷰'예요. 한 사우를 10명의 동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네요. 동료의 장점을 칭찬하고 배울 수 있겠어요. 슈퍼맨 망토를 한 스마일 해결사 당시 박태문 주임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입니다.



**표지** 타공 효과를 주어 표지를 제작했네요. 표지 부분에 구멍을 내서 맞는 페이지의 이미지가 밖으로 보이게 하는 가공법입니다. 재미있는 효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내지** 협력업체 직원들과 돈독한 우정과 의리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코너입니다. 자칫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관계를 동료애가 느껴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풀어냈네요.

# 2013 Autumn



**표지** 사우들의 액티비티 활동 컷을 표지에 내세웠네요. 표지 사진에 관한 이야기는 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보기 좋아요.

**내지** '세플러인 탐구생활'이라는 꼭지명으로 사우들이 궁금해 할 다양한 내용들을 설문조사해 공유해 보는 지면 같아요. 주제가 '나를 멘붕시키는 선후배, 나를 기쁘게 하는 선후배'이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들은 비슷하네요.



2014  
Winter



2015  
Spring



**표지** 세플러코리아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물류센터가 표지를 장식했어요. 네 사우의 진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이 코너 기억하시나요? 남사 사우 5명의 마사지사 체험기. 선녀 같은 표정과 포즈는 2014년 겨울호를 통틀어 베스트 포토상이 아닌가 싶네요.



**표지** 표지에서 봄기운이 확연히 느껴지네요. 화사한 벚꽃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왔나 봐요.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신나게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동감 넘치네요.

**내지** 당시 품질경영 승철진 상무 이야기가 나오네요. 재미있는 것은 입사지원서를 냈을 당시부터 그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올랐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사무실에서 모습, 가족사진 등 그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흥미로워요.



2016  
Summer



**표지** 이번에도 일러스트 배경과 사우의 촬영 컷을 합성한 표지가 나왔네요. 선 위주의 일러스트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지** '무모한 도전' 기억하세요? 퍼즐 빨리 맞추기, 수박 빨리 먹기 등 가볍지만 즐거운 게임으로 팀워크를 다지는 코너였어요.

2017 Autumn

**표지** 색감 가득한 일러스트로 표지를 채웠네요. 계간 지이다 보니 계절감을 살리는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을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네요.

**내지** 이 꼭지 기억하시나요? 연인들의 결혼 소식과 사랑이야기를 전했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결실을 앞둔 만큼, 달달한 장면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네요.



2018 Winter



**표지** 세플러의 성장 모멘텀을 테마로 풀어가면서 표지도 그것들을 상징하는 임팩트한 일러스트를 사용했어요. 세플러 그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자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네요.


**내지** 세플러코리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갈이의 가치'라는 코너예요. 협력업체 대표님을 비롯해 영양사님, 관리소장님, 물류기사님 등 많은 곳에서 함께 하는 분들을 만났죠.

2019 Spring

**표지** 2019년의 표지는 계절마다 테마를 잡아 레트로한 느낌으로 따뜻한 감성을 표현했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제조업의 이미지를 말랑말랑하게 표현했지요.

**내지** 사우들이 직접 테마를 표현해보는 '테마 즐기기'가 눈에 띄어요. '돌아가다'라는 컨셉에 맞춰 교복을 입고 로라장을 찾아 추억을 곱씹어 보았어요. 로라를 타며 즐거워하던 사우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자, 창간호부터 2019년 사보까지 잘 둘러보셨나요?  
옛날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흥미롭지요.  
사보 <세플러+원>은 지금껏 우리에게 관한 소식을 전하며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플러+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공감하며 서로를 더 넓게 이해하고 있죠.  
나와 너를 이어 우리로 만들고 우리와 세플러코리아를 이어 하나로 만든 <세플러+원>.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의 '소통과 화합'을 단단히 이어가겠습니다.



**안산**

2004년 5월 7일. Innovation Day

# 현재에 과거를 잇다...

사보기자들이 특별한 선물을 전해왔습니다.

과거 세플러코리아의 순간이 담긴 사진을 찾아 같은 장소에서 옛날 사진을 덧대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전의 사진을 구해, 장소를 살피며 요리조리 구도를 맞추는 것까지 다소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의 세플러코리아를 있게 한 과거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이어받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2020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 창원1공장

2000년 2월 15일.

그룹 오너 중 한 명인 Dr. Uwe, Loos 방문 기념식수



## 창원3공장

2004년. 창원시 주관 '창원 지역 아름다운 생태 환경 공장' 조성





1991년 3월 6일. 독일 바이에른 주 경제장관 방문 전주

전주 1989년 4월 24일. 삼미정공 준공식



대우공방 은공예  
45년의 삶  
이동희 병인과 아들 이동현

은으로  
대를  
잇다





은수저 명인으로 선정된 이은희 명인. 열네 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은공예를 시작했으니 반세기 가까이 은을 다룬 인물이다. 어느 날, 의사가 꿈이라던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이어보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은공예가 사양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동안 익힌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들은 진로까지 바꾸며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기로 결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은공예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아무진 꿈도 꾸게 되었다.



“70년대 초반, 큰형님 밑에서 은공예를 배웠는데 당시만 해도 100% 수공예로 은제품을 만들던 시대였어요. 커다란 쇠파치로 일일이 두들겨서 문양을 집어넣었습니다. 80년대 들어 은공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수작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고안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은공예에 기계를 도입한 사람일 겁니다. 여기 있는 기계들도 대부분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은수저 명인 이은희 명인은 공방 여기저기 놓여있는 큼지막한 기계들을 가리켰다. 압연기들인데 초창기에 만든 것들도 200톤 정도의 압력을 내는 기계였다고 한다. 기계식 제작방식이 입소문이 나면서 순식간에 너도나도 비슷한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은공예 공방도 늘어나면서 은공예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이은희 명인도 ‘대우공방’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다가 2010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은값이 오르니 사람들이 은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내다팔기 시작했다. 길모퉁이마다 ‘금샵니다 은샵니다’ 입간판이 서 있던 시절이었으니 견디지 못하고 문 닫는 은공예 공방들이 속출했다. 꽤 많은 직원들로 북적거리던 대우공방도 은공예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지금은 ‘근근이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공방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토로한다. 종종 은공예를 하는 공예인들끼리 힘을 모아 작품전을 열기는 하지만 돈 되는 일은 아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지자체에서 공예인들의 작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작품을 구입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예인들이 전통은 고사하고 생계 걱정을 해야 하니 이리다가 은공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 때가 많아요.”



## 내 일을 한번 이어보는 것은 어떨겠니?

“내 일을 한번 이어보는 것은 어떨겠니?”

어느 날 TV를 보다가 아들 이동현 씨에게 넌지시 물었다. 뜬금없는 말 같았지만 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건넨 말이었다고 한다.

“예전에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가게들은 입구에 언제부터 시작된 가게인지 적어 놓았더라고요. 대부분 100년 이상 된 곳들을 보면서 ‘3대는 이어야 100년 가게가 될 텐데’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침 그날도 TV에서 여러 대짜 가업을 잇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다보니 문득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40년씩이나 했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의사가 꿈이었다는 아들 이동현 씨도 아버지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어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고 한다. 평소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하면 빈말을 하지 않을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아버지의 일을 잇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여름에 좁은 공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시다가 ‘너는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힘들게 일하지 말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다고 한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데는 확실치 않으나 막연하게나마 의사가 되는 꿈을 꾸며 자랐다. 하지만 아들은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인문계에서 예체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미대입시를 준비해 금속공예과에 진학했다. 대학졸업을 앞두고는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근무하며 공예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대를 잇기로 한 것은 2015년 초였다.

“아버지가 40여년 걸어오신 한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의 배경은 딱 하나였다고 한다. 아버지였다.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분이셨다. 늘 공방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유명한 대학교수나 대기업 임직원들이 찾아와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아버지 밑에서 배운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우공방’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대우공방 은공예**  
**45년의 삶**  
**이동희 명인과 아들 이동현**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은공예로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최고의 기술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욕심이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동희 명장은 요즘 들어 ‘아들의 손에 괜히 은을 쥐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가 든다고 고백한다. 은공예 하는 아버지 덕분에 ‘최소한 은수저는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기 때문이다.

이동현 씨는 정부의 지원사업도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아 새로운 브랜드도 론칭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도 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등 판로개척에 뛰어들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꿈꾸던 빅픽처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만도 할 테지만 이동현 씨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여태까지는 일을 하면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으니 판로개척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곳에서 은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30년씩 되신 분들이라 기술에 관한한 내로라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에 부딪칠 것입니다.”

“아들아,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 괜히 판로 개척한다고 애쓰지 말자. 지금처럼 해도 굶어죽지는 않는다.”

몸으로 부딪치며 막힌 벽을 뚫으려 애쓰는 아들이 안쓰러운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잠시 은공예는 덮어두고 실린더 같은 기계부품을 제작하며 불황의 탈출구를 만들어보자고 권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건 은공예를 꾸려가기 위한 탈출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탈출구일 뿐이다”라며 극구 말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허허허 웃으신다. 생각은 다르지만 이제 미래는 아들이 끌고 가야 할 몫이니 아들의 고집을 꺾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은공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전 제 꿈이 되었어요. 진로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멈추거나 돌아가기보다는 한발씩이라도 내다보며 부딪쳐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듯이 나중에 내 아이가 생기면 나도 이 일을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때 아이가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가업을 잇게 하고 싶어요.”

## 델 테크놀로지스 2030 미래 전망 리포트

# ‘퓨처 오브 커넥티드 리빙’ (Future of Connected Living)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 회장 겸 CEO 마이클 델)가 2030년 미래 우리의 일상 생활의 변화를  
조망한 보고서 ‘퓨처 오브 커넥티드 리빙(Future of Connected Living)’을 발표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부터 사고적(思考的) 리더십(Thought Leadership)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간-기계 파트너십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조망한 리포트 시리즈를 발표해 왔다.

“퓨처 오브 커넥티드 리빙”은 올해 발표된 “퓨처 오브 이코노미(Future of Economy)”,

“퓨처 오브 워크(Future of Work)”의 뒤를 잇는 마지막 보고서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연구소인  
IETF(Institute of the Future)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 4천 6백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 대상 인터뷰와  
미래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미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변화로 이끌 신기술로 엷지 컴퓨팅, 5G, AI, 확장현실(XR) 그리고  
사물인터넷(IoT)을 꼽고, 이러한 신기술들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1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 주요한 변화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전망한다.



### 변화 1.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실 (Networked Reality)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기존의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을 넘어 다양한 기기로 확장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이 단순히 화면을 통해 접촉하는 공간을 넘어서 실제의 현실 위에 겹쳐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5G 네트워크의 확산과 함께 네트워크 기술이 5G 이상으로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점차 현실화될 것이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가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대학 연구소에서 개발된 '브레이브마인드(Bravemin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 도구로, 임상가가 환자를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외상성 사건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외상과 관련된 감정과 경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변화 2. 커넥티드 모빌리티 (Connected Mobility)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컴퓨터. 자율 주행 차량의 모습을 한 이 모바일 컴퓨터는 사물인터넷으로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연결해 도로 상황과 도로 주변 요소들을 파악하며 도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매핑



(Mapping)하여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육상의 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델 테크놀로지스는 노키아와 함께 네덜란드의 도시 델프트(Delft)에서 활용도가 낮은 운하를 통과하는 반자동 수소 동력 바지선을 활용해 복잡한 도심의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센서, 차량 및 기기들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례로 꼽힌다.

### 변화 3. 디지털 도시를 넘어 스스로 자각하는 도시 (From Digital cities to Sentient cities)

보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스마트 오브젝트, 자체 보고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체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세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인류의 절반 이상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유엔에 따르면 이 비율은 향후 30년간 6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교통, 안보,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정부, 시민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스마트화, 디지털화 되는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일례로 싱가포르 전력(Singapore Power Ltd.)은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요금을 낮추기 위해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물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험적으로 배포했다. 이는 각 가정의 가전제품을 감지하여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파악하고 사용량 목표 등을 제공하는 한편,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량과 자신의 사용량을 비교해 스스로 자원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변화 4. 에이전트와 알고리즘 (Agents and Algorithms)

10년 후 미래에는 고도로 개인을 위해 특화된 OS(운영 체제)가 사람들의 일상 업무를 돕는 것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이 지능적인 운영 체제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자동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개체와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일상 업무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스탠포드의 대학생이었던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는 주차 위반 딱지가 너무 많이 쌓이자 그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AI 변호사 앱인 '두낫페이(Do not pay)'를 개발했다. 이 앱은 주차 위반 딱지가 제대로 발행된 것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서류 작업 등 관련 업무를 돕는다. 이 앱의 기능은 더욱 발전해 은행 수수료를 협상하고 신용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돕고, 데이터 유출에 대한 소송도 제기해준다.



## Future of Connected Living

퓨처 오브 커넥티드 리빙

#### 변화 5. 사회생활을 하는 로봇 (Robot with Social Lives)

로봇은 우리 삶의 조력자가 되어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지식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해 실시간으로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시드니 공과 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연구원들은 로봇이 소셜 그룹에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넘봇츠(Numbots)'를 개발했다. 연구원들은 개념 증명(proof-of-concept) 단계의 이 시스템을 통해 로봇이 음료를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이 주도하는 변화가 개인과 조직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움직이는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인재 채용에서부터 은행의 대출 대상자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시에서 스스로 자각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개인 및 기업과 협력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즈니스 리더의 74%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44%는 "AI 사용과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했다.

# 새해에는

더 나은 당신과 이어줄 좋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얻었던 것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더 높은 삶의 질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모습 또한 변화된 당신에게 맞추어 변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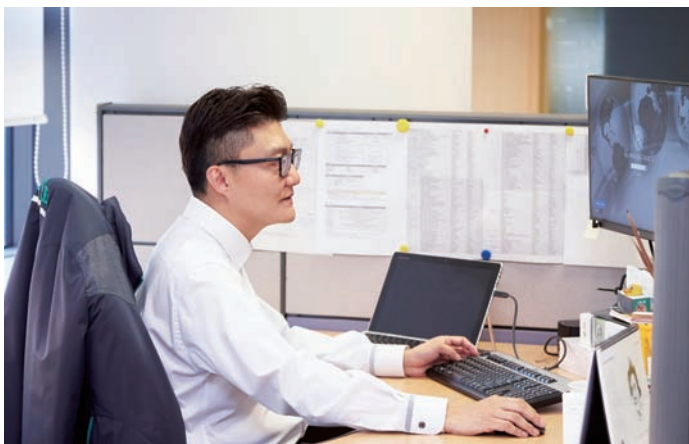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오노레 드 발자크(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나를 위한 하루 선물/ 서동식 지음. 함께북스 퍼냄> 중에서

# 신구(新舊)의 조화를 이끄는 변화의 리더

●  
 오토모티브 사업 기획팀을 이끄는 김형덕 이사.  
 입사 20년 차로, 오토모티브 분야에선 잔뼈가 굵다.  
 그동안 자동차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능력을 인정받아 2019년 1월 이사로 위촉됐다.  
 어려운 자동차 시장을 헤쳐 나갈 돌파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조화가 있는 유쾌한 조직이란다.  
 능동적인 조직이야말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사로서 1년을 보낸 지금,  
 그는 어떤 2020년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 Q. 자기 소개해주세요.

2000년 12월에 입사해, 2019년 1월 1일에 오토모티브 사업 기획팀 이사로 발령받은 김형덕입니다.

## Q.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주요 업무는 한국 오토모티브 사업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모티브 사업부 내 코디네이션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있죠.

## Q. 지금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방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조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 Q. 조직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먼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 팀이 소속돼 있는 오토모티브 사업부가 과거 5년 동안 이루지 못한 목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매출과는 다르게 오토모티브 사업부는 조금씩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업무 영역은 넓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죠. 또 조직의 특성 상 여러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도 보니, 회사 내 인맥도 넓은 것이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인 저도 함께 하는 팀원들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젊은 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나요?**

크게는 내실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 대 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중이지요. 최근에는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근 오토모티브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룹 차원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20년에는 신사업 개발,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 등 몇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입사했던 20년 전에는 유독 선배들이 후배를 잘 챙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고, 동료들이 동료 이상으로 애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저 또한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친구 같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팀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려나요?(웃음)



# 2020년 오토모티브 사업 기획팀에 불어올 막강한 신바람! 그 바람 함께 맞으실래요?



“

회사의 성장은

좋은 제품에서 시작되지만,

그 좋은 제품은 결국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됩니다.

즉, 조직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활기가 넘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일을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유연한 조직.

그런 조직이야말로말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

# 김형덕

## 잘 챙겨주는 친구 같은 리더

**from. 서형진 대리**

팀장님과 함께 일한 지 햇수로 5년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저희를 먼저  
다독이시죠. 가끔씩 출장으로 안 계시면,  
팀장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만큼  
그리워진답니다.  
2020년에도 팀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파이팅입니다!



**from. 김형덕 이사**

팀의 특성상 급하게 또는 갑자기 진행되는  
업무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제 역할을 다 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광운아,  
형진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대이~~



**오토모티브  
사업  
기획팀**



**from. 민광운 차장**

세상이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고 종종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긍정과 부정을 함께 생각하라고 하셨고요.  
업무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챙겨주시는 형님 같은 팀장님.  
늘 웃으시는 팀장님처럼 긍정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장비 닥터들, 설비보전팀

# “가상현실 속에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앞줄 왼쪽부터 최춘현 사원, 정태기 팀장(부장)  
뒷줄 왼쪽부터 이정환 사원, 유갑수 과장, 유선호 사원



총 16명으로 구성된 설비보전팀은 10년 가까이 팀장 대행체제로 있다가 2년 전 정태기 팀장이 오면서 팀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후된 PC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가지며 팀워크를 강화했다. 팀원들도 병원에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듯이 안산공장에는 장비를 살리는 설비보전팀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장비 닥터들이 모처럼 VR 체험을 위해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지하부터 옥상까지 안산공장 장비는 설비보전팀의 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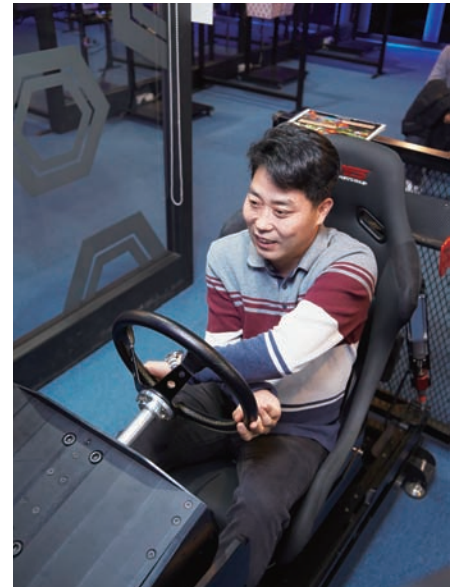
“VTR은 들어봤지만 VR은 또 뭐야?”

“아이들 데리고 와서 결제만 하던 곳인데 내가 VR을 할 줄이야.”

안산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VR 게임장에 들어서는 다섯 명의 설비보전팀 팀원들. VR게임은 처음이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주중이라 그런지 게임장 안은 아직 한산한 편. 팀원들은 전자오락실 정도를 상상하고 왔으며 난감한 표정이다. 어떻게 놀아야 할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자 게임장 직원이 다가와 즐기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처음엔 기기 다루는 법을 어색해 하던 팀원들도 금세 적응한 듯 헤드마운트를 낀 채 VR의 세상 속으로 빠져 든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라 첨단게임에도 금세 적응하는 눈치다.

“팀원들과 함께 활동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봄부터 신청을 했는데 드디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VR 체험이 생소해서 내심 걱정했는데 팀원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 기쁩니다. 흔쾌히 시간을 내어준 팀원들이 고맙습니다.”

팀원들이 VR을 즐기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는 설비보전팀 팀장인 정태기 부장이다. 이번 팀 체험 이벤트도 직접 신청했다고. 설비보전팀의 업무는 생산 장비의 유지보수, 예방보전을 통해 설비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 공장의 생산을 지원하는 일이다. 지하에서 옥상까지 모든 설비가 이들의 손을 거쳐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가 이렇다 보니 팀원들도 늘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10년 만에 팀장대행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설비보전팀은 10년 가까이 팀장 대행 체제로 꾸려온 팀이다. 리더십을 발휘할 팀장이 없다 보니 팀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2년 전 정태기 부장이 설비보전팀의 팀장을 맡으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무엇보다 노후된 연삭설비 PC운영 체제를 윈도우10으로 자체 업그레이드 한 것과 단종된 부품을 새로운 대체품으로 확보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생겼다.

“제가 설비보전팀에서 9년째 근무했는데 팀장님이 생긴 것은 처음입니다. 정태기 부장님이 팀장님으로 오시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팀의 체계도 잡히고 팀의 자부심도 생겼어요.”

입사 9년차가 되었다는 유선호 사원의 설명이다. 회사 밖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다면 회사 안에는 장비를 살리는 설비보전팀이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 것이다. 최근에도 장비의 고장으로 결품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는데 팀원들이 힘을 모아 설비를 정상 가동시킴으로써 단단한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정환 사원도 설비보전팀의 최고 장점으로 ‘팀워크’를 꼽았다.

“설비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하겠거니 미루거나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라고 선을 긋지 않아요. 힘을 보태면 훨씬 더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담당 파트가 달라도 어떤 장비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태기 부장도 팀 자랑에 나섰다.

“설비보전팀이 오랫동안 팀장의 부재 속에서도 팀을 깨끗하게 지켜왔습니다. 애사심이 아주 강한 팀입니다. 무엇보다 변화에 잘 적응하며 팀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아주 자랑스러워요.”



## VR의 세상 속에 폭 빠지다

“VR 게임은 처음이라 많이 궁금했는데 직접 해보니 실제로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은 현장감이 느껴졌어요.”

팀원들과 함께 한참 동안 VR 게임을 즐기던 정태기 부장이 VR 게임의 생생한 소감을 말한다. 레이싱을 즐기던 최춘현 사원도 너무 실감나서 멀미가 날 뻔했다며 맞장구를 쳤다. 한쪽에서는 유선호 사원이 롤러코스터 삼매경에 폭 빠져있다. 평소에도 사보에 소개되는 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팀은 언제쯤 사보에 나오려나’ 내심 부러웠다는 그는 이벤트 참여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며 참여하길 잘 했다고 즐거워한다. 활쏘기 게임에 폭 빠진 이정환 사원. 헤드마운트를 낀 채 양팔을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 속에서 적을 쫓고 있는 듯하다.

“활쏘기 하러 간다고 해서 양궁장이라도 가나 했는데 와보니 VR 게임장이었어요. 아이들이 VR 게임을 좋아해서 종종 오기는 했어도 저는 결제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해보니 신세계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이정환 사원은 팀 체험 기회가 아니었으면 VR 게임의 묘미를 모른 채 여전히 결제만 해주는 아빠로 머물 뻔 했다고 웃는다. 이날 팀 체험에는 팀의 최고 연장자인 유갑수 과장도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갑수 과장도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평생 VR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뻔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VTR은 알아도 VR은 뭔지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  
이나 즐기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너  
무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어느덧 약속한 1시간이 쏜살처럼 흘렀다. 팀원들은  
‘즐거운 체험이었다’면서도 함께 하지 못한 동료들  
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눈치다.

“아직도 회사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팀원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팀원 전체  
가 VR 게임장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  
겠어요.”

이런 팀원들의 마음을 이해한 듯 정태기 부장은 “다  
음번 회식장소로 VR 게임장을 적극 고려해보겠다”  
며 화답했다. 팀장도 팀원들도 이심동심이다.





# 매콤 달달한 식사와 깊고 진한 차 한 잔 <차담소>

맛집 <차담소> 서울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종로타운 B 070-7797-0298

매우 주관적인 평가는 : ★★★★★



차담소는 전통 한방차와 퓨전 블렌딩차, 맑은수제꽃차, 건강 음료, 프리미엄 커피, 디저트 외 다양한 사이드 디쉬로 구성된 홈메이드 방식의 퓨전카페다.

메뉴가 많아 전문성이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희한할 정도로 모든 음식들이 맛있다.

계산대 한쪽으로는 주인장의 내공을 보여주는 각종 위축장과 대회 심사위원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빌딩 지하, 그것도 이 아담한 곳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까? 그건 바로 '맛집'이라는 강력한 전파력 때문이다.

오늘 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 주윤선 대리도 일주일에 2번은 꼭꼭 찾을 정도로 좋아하는 곳이란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곳의 점심 메뉴는 김치볶음밥과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상큼한 에이드가 함께 하면 최고의 궁합이죠!"



주윤선 대리의 추천으로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떡볶이와 상큼한 토마토샐러드가 곁들여진 김치볶음밥은 자동반사적으로 침을 꿀꺽거리게 만든다. 게다가 주윤선 대리가 말한 최고의 궁합이었던 과일청 에이드는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팍팍 솟는다.

저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와 김치볶음밥을 먹고, 에이드를 한 입 쪽 마시면 머리 위에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이수현 대리(사업관리), 최태영 대리(NPM구매), 주윤선 대리(커뮤니케이션&브랜딩)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듯 두 눈을 반짝거리다.



입사동기지만 늘 다정한 오빠처럼 이수현 대리와 주윤선 대리를 챙기는 최태영 대리.

오늘도 역시 두 동생들의 접시를 먼저 들어 떡볶이를 푸짐하게 덜어준다. 어디 그뿐이라, 떡볶이에 곁들이는 주먹밥도 손수 주물거려 예쁘게도 빚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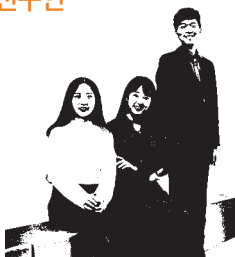
영국 신사 저리 가라는 최태영 대리의 매너에 이수현, 주윤선 대리는 밝은 미소로 화답한다. “고마워~ 오빠!”라며.



“음~~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러게~ 오늘은 더 맛있다.”, “맛도 맛있지만 여기는 늘 푸짐해서 좋지!”  
음식에 대한 칭찬과 만족감을 표현하며 식사를 즐기는 세 사우들. 요즘은 일이 바빠 자주 못 봐서 아쉽다는 등,  
최근에 본 영화 등 동료지만 친구처럼 편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 입사동기 우리는 동료이자 친구

● 입사 4년 차 동기 셋이 모였다. 예전에는 동기들이 여행도 함께 가고, 정기 모임도 가졌었다고. 하지만 바빠지고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 모두 함께 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서울에는 '식사합시다'에 참여한 최태영 대리(NPM구매), 이수현 대리(사업관리), 주윤선 대리(커뮤니케이션&브랜딩)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태형 대리(SCM)가 입사 동기다. 김태형 대리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간만에 동기의 '의~~~리'를 다져보겠다는 이들. 지금부터 매콤 달달한 떡볶이와 함께 동료이자 친구인 이들의 수다가 시작된다.



## 학창시절 친구처럼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세 사람이다. 음식 하나라도, 일 이야기로도 학창시절 친구들처럼 까르르 거린다. 분주하게 오가는 대화 틈에서 서로는 어떤 동료들인지 물었다.

“저희는 가족처럼 무던한 사이인 것 같아요. 가족을 오랫동안 못 봤다고 어색하진 않자나요. 저희가 그래요. 가끔 봐도 편하고 자주 보면 더 좋고요.”

(주윤선 대리/커뮤니케이션&브랜딩)

“윤선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침에 영어학원을 같이 다니거든요. 학원 끝나고 회사도 같이 오고, 회사에서도 틈틈이 보고 집에 갈 때도 같은 방향이어서 같이 가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나 봐요!”

(이수현 대리/사업관리)

“태영 오빠는 제가 상담하러 자주 찾아가요. 어떤 고민도 잘 이해해주고 현명한 해결책을 줄 때가 많아요. 입사동기지만 저에겐 멘토같은 든든한 사람이죠.”(이수현 대리/사업관리)

“윤선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예요. 저도 윤선이를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수현이는 엉뚱한 면이 있지만 재미있는 친구예요. 또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고 성실히 하려고 해요.”(최태영 대리/NPM구매)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쉽게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운 요즘이다. 하지만 취업이라는 치열한 관문을 함께 뚫은 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편하게 의지하는 중이다.

## 2020년 우리의 계획

시간도 남았겠다, 소화도 시킬 겸 간단히 산책을 나섰다. 셋이 한 줄로 나란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화제는 20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 곧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야~ 으앙~~”

(이수현 대리/사업관리)

이수현 대리의 귀여운 비명에 다들 함박웃음을 짓는다.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일 있어? 아님 실천하겠다고 생각한 계획 같은 거?”

(주윤선 대리/커뮤니케이션&브랜딩)

“나는 차를 사고 싶어! 편하기도 하지만, 어디든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최태영 대리/NPM구매)

“나는 30세를 기념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서른의 나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거든.”(주윤선 대리/커뮤니케이션&브랜딩)

“와~ 다들 멋지다. 나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아직 면허가 없거든. 조금 겁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려고!”(이수현 대리/사업관리)

새해 계획을 함께 나누는 세 사람. 차를 사면 시승식을 하고, 운전면허를 따면 한 턱을 쓰고, 30대의 멋진 사진을 찍으면 공유하겠단다. 함께 성장해나서기 되어 주며, 조금씩 빛을 발하는 최태영, 주윤선, 이수현 대리. 이들이 말한 소망 중 가장 간절한 것은 2020년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멋진 동료이자 친구가 되자는 것이었다.



# TALK. TALK..

그룹채팅 3 최태영 대리, 주윤선 대리, 이수현 대리

## SCHAEFFLER



주윤선 대리

역시 광화문 떡볶이는 차담소가 짱인 듯ㅋㅋ

이수현 대리



맞아, 맞아! 떡볶이 덕후인 언니가 인정할 정도면 말 다했지ㅋㅋ



최태영 대리

그나저나 수현아, 내년에는 정말 면허 따는 거야?  
가능하겠어?

이수현 대리



저기요. 최태영 대리님!  
대리님 내년 소원인 자동차 구매는 가능하시겠어요?



주윤선 대리

ㅋㅋ~  
내년에 우리 또 차담소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최태영 대리



우리 제발 그러지 말자~ ㅋㅋㅋ 2020년 목표 좀 달성하자!



이수현 대리

언니! 우리 내일은 점심에 뭐 먹지???

주윤선 대리



헤헤~ 뭘 묻고 그래~ 당연히 떡볶이 아니면 돈가스지~.



최태영 대리

오~ 노우! 나는 좀 빠 줘라~ 야! 태형이 데려가 태형이...  
오늘 못 왔으니깐ㅋㅋ

이수현 대리



좋았쓰~~  
오빠는 차 뽑으면 우리 태우고 신당동에서 떡볶이 사주기!!



최태영 대리

ㅇㅅㅇ?

주윤선 대리



완전 딱이네! 태영오빠 차를 수현이가 운전해서! 골?

# 힘들게 오르지만 에너지가 충전돼요!

## 창원3공장 등산동호회

●  
 흑자는 다시 내려올 산을 무엇 하러 오르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등산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등산 병아리들이나 하는 말이다. 경사진 흙길과 돌길을 이겨내고 정상에서 만난 공기는 도심의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구슬땀을 흘리며 힘듦을 참아내고 정상을 향하는 창원3공장의 등산동호회. 신선한 공기로 늘 활력 넘친다는 그들을 따라 2019년 마지막 산행에 나섰다.

### 팔용산의 기운을 받아랏! 으랏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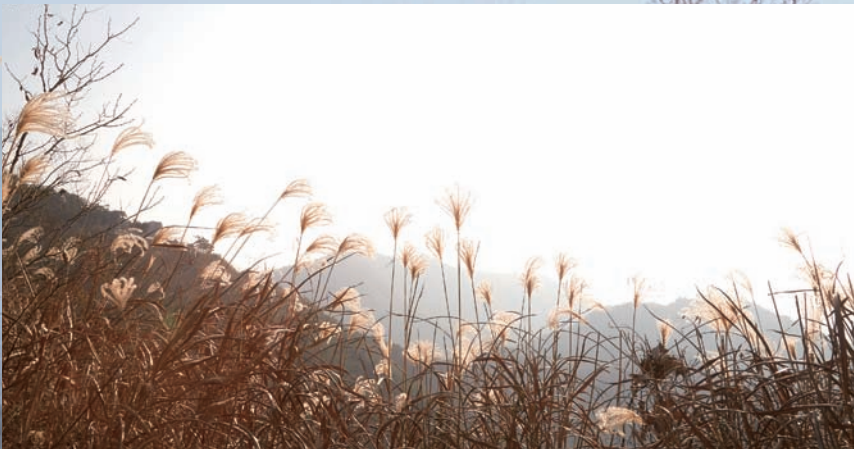
2019년 등산동호회가 오를 마지막 산은 창원의 팔용산이다. 산 가운데 있는 저수지에 용 여덟 마리가 꿈틀거리는 형세가 있어 그렇게 불린다. 팔용산을 오르는 길은 여럿 있지만 오늘 우리는 돌탑공원 주차장을 시작으로 돌탑군락지를 거쳐 팔용산 정상, 상사바위 갈림길, 봉암수원지로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했다. 산행시간은 왕복 2시간 30분 정도로 길지는 않지만 제법 경사가 있어 신발 끈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조언이다. 이번 산행의 대장은 김경운 부장(연구기획)이 맡았다. 팔용산을 수없이 올라 산세에 밝은 탓이다. 매번 산에 오를 때마다 산행대장을 뽑아 선두로 세우는데 기준은 그 산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된다. “자! 2019년 마지막 산행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으로 올해의 동호회 활동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팔용산의 기운도 듬뿍 받아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산행대장을 맡은 김경운 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드디어 용 여덟 마리가 꿈틀거린다는 팔용산에 발을 내딛는다.

### 천개의 돌탑에서 소원을 빌고

창원3공장 등산동호회는 사내에서 오래된 동호회 중 하나다. 회원 수는 40여 명으로 분기별로 정기산행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개산행에 나선다. 신입회원들도 꾸준히 들어오지만 한번 가입하면 꼭 함께 하는 탈퇴율이 적은 동호회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힘들게 오른 보상을 확실히 해주기 때문이란다.

“눈앞에 절경이 펼쳐지고, 신선한 공기는 건강을 찾아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니 동료애가 싹트는 건 시간문제죠. 게다가 인생 최대의 적 뱃살까지 쏙 빼주니 이만한 취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팔용산 정기 밤  
희망찬 새해 되세요!



박상호 총무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호회는 등산동호회가 제일이라한다. 10여 분을 걸었을까? 팔용산의 명물 돌탑군락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시민 이삼용 씨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23년 간 1000개의 돌탑을 쌓은 곳이다. 이곳저곳에 기묘한 형상으로 쌓아올린 돌탑들은 보기만 해도 그 정성이 느껴진다. 회원들도 감탄사를 연발하며 소원을 빌고, 폰카 촬영에 바쁘다. 돌탑 언저리에 또 다른 돌을 올리며 소원을 비는 회원들. 어떤 소망이기에 저리도 진지한지 내심 궁금해진다.



## 오감이 힐링되는 등산동호회로 오세요!



위에 왼쪽부터 손종오 부장, 진영철 주임  
아래 왼쪽부터 최두호 사원, 조오수 주임, 이규석 부장, 박상호 사원, 조민정 대리, 니경범 부장, 김경운 부장

### 야호~ 드디어 정상이다!

“와~ 이 맛에 산에 오르지!”

“인증샷 남겨야지! 어서들 모여~”

“야호~ 야호~”

저마다 정상을 밟은 소감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중이다. 그 중에서도 등산동호회 회원들답게 먼 경치를 눈에 넣으며 긴 호흡 쉬기에 열심이다. 확실히 아랫동네 공기와는 다르다며 일주일일을 거뜬히 보낼 보약이라한다. 게다가 탈 날 일 없는 공짜이니 많이 마셔두면 좋다고. 심 여분을 들여 산의 기운을 받았을까? 표정에서부터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그러더니 이제 뱃속을 채우자며 가방에 싸온 주전부리들을 꺼낸다. “이게 간식이야? 잔칫상이야? 너무 푸짐한 거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족발에서부터 계란말이, 신선한 과일, 빵 등 거짓말 조금 보태 미니 뷔페는 돼 보인다. 올라오면서 다 뺐 뱃살을 다시 찌우는 거 아니냐는 손종오 부장(툴 프로토 센터)의 말에 이규석 부장(전용기개발팀)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며 걱정을 말한다.

“부장님! 정말 0칼로리 맞죠? 내려가면서 또 빠질 거라 믿어요!(웃음)”

오늘 참석한 유일한 여자회원인 조민정 대리(표면 테크놀로지)의 말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퍼진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생수를 따라 담고 동호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잔을 부딪친다.

“창원3공장 등산동호회, 포에버!”를 외치며.

# 저희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방방곡곡 명산의 기운을 받아 만병통치, 무병장수, 불로장생이 가능합니다!

## 창원3공장 등산동호회

### ...등산동호회 무엇이 좋은가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등급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는 기본이고, 두 다리는 천하무적, 피부는 뽕송뽕송, 시력은 좋아지고 덤으로 마음까지 넓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 ...회원 가입 자격은?...

걸을 수 있는 창원3공장 사우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혹 오래 걷기 힘든 평발이라도, 회원들이 안고 업고 정상까지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 ...등산병아리인데 민폐는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입회원을 위해 난이도를 고려해 산을 선택합니다. 게다가 베테랑 회원들이 많아 당신을 날다람쥐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이지요.

### ...산행 일정이 궁금해요!...

분기별로 정기산행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개산행을 갑니다. 번개산행은 시간이 맞는 회원들만 참석하면 됩니다.





# 사랑의 연탄봉사 “겨울이 따뜻해요!”

지난 12월 7일 세플러코리아 임직원과 가족들은 따뜻함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성북구 북정마을 일대 형편이 어려운 6가구에 온기를 전할 연탄과 식료품을 전달한 것이다. 길게 줄지은 임직원들은 연탄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소병용 상무는 “아이와 함께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구슬땀을 맺히게 한 연탄 봉사였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다는 봉사자들. 세플러코리아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랑의 집 짓기’, ‘1사1촌’, ‘장학금 지원’, 대학생 봉사활동 ‘에버그린’ 등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 한 장씩을 옆으로 나눕니다. 동료와 이렇게 오랜 시간 손을 스치며, 눈을 맞추고 웃음을 나눈 적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이수현 대리를 위해 온갖 유머를 터트리던 성재규 차장. 추위를 녹여내는 차장님의 유머도 연탄봉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겠죠?



이번 봉사는 성북구 북정마을 6가구에 200장씩, 총 1200장의 연탄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힘들기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더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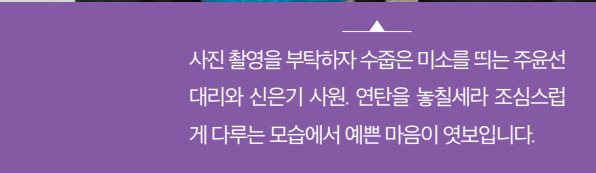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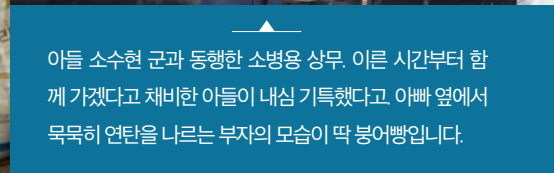


사진 촬영을 부탁하자 수줍은 미소를 띠는 주윤선 대리와 신은기 사원. 연탄을 놓칠세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예쁜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들 소수현 군과 동행한 소방용 상무. 이른 시간부터 함께 가겠다고 채비한 아들이 내심 기특했다고 아빠 옆에서 묵묵히 연탄을 나르는 부자의 모습이 딱 봉어뻥입니다.



세플러코리아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일시 | 2019. 12. 7.(토) 장소 | 성북동 북정마을 세플러코리아 함께 하는 사랑밭



소병용 상무, 아들 소수현

### 소병용 상무(법무)

처음에는 초등학교 아들에게 도심의 달동네에 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봉사를 통해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 높은 산동네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소외 계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봉사 시간이었지만 배달된 연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들에게 되레 내가 뭉클함을 느꼈던 것 같다.

### 아들 소수현(12세)

사실 나는 진짜 연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연탄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더욱 몰랐다. 처음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가벼운 줄 알았는데, 그건 오산이었다.

아빠를 따라간 봉사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보일러만 틀어 놓고 '따뜻해서 좋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독거노인 분들이 겨울에 연탄을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봉사할 기회가 생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 할 생각이다.

## 봉.사.일.기.

### 최재원 부장(사업관리)

성북동 북정마을에 도착했다. 하늘이 닿을 것만 같고, 저 비탈진 길을 어찌 오르나 싶을 곳들에 집이 있었다. 우리는 우비, 앞치마, 조끼, 토시 등 연탄재를 멀리하려고 열심히 무장했고, 정신없이 연탄을 날랐다. 땀이 흐르니 연탄재도 더 진하게 옷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포근한 눈이 날리면서 사방의 검은 재를 하얗게 지워 놓았다. 마치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이번 봉사는 참 많은 감정과 생각이 오갔다.

### 아들 최승현(14세)

연탄 한 장이 꽤 무겁다며 어른들이 걱정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집까지는 거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들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 분명 나만 힘든 것은 아닐텐데... 모두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봉사를 마치니 어깨와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분은 좋아지기 시작했다.



최재원 부장, 아들 최승현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 <눈 온다, 와 눈이 온다> / 1951년



## 인생을 더 멋지게 이어 줄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한 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평생 농장일과 자수를 하며 살아 온 모지스 할머니. 관절염으로 더 이상 자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때의 나이가 72세. 101세로 돌아가시기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미국의 국민할머니로 불리며 그림으로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전했던 그녀.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힘들지 않았냐는 수많은 질문에 모지스 할머니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말했다.





● 새로운 5G 셀룰러 네트워크 표준은 산업 시설과 자율 주행 차량을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더욱 박차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동안 이것은 모바일 통신의 빠른 진화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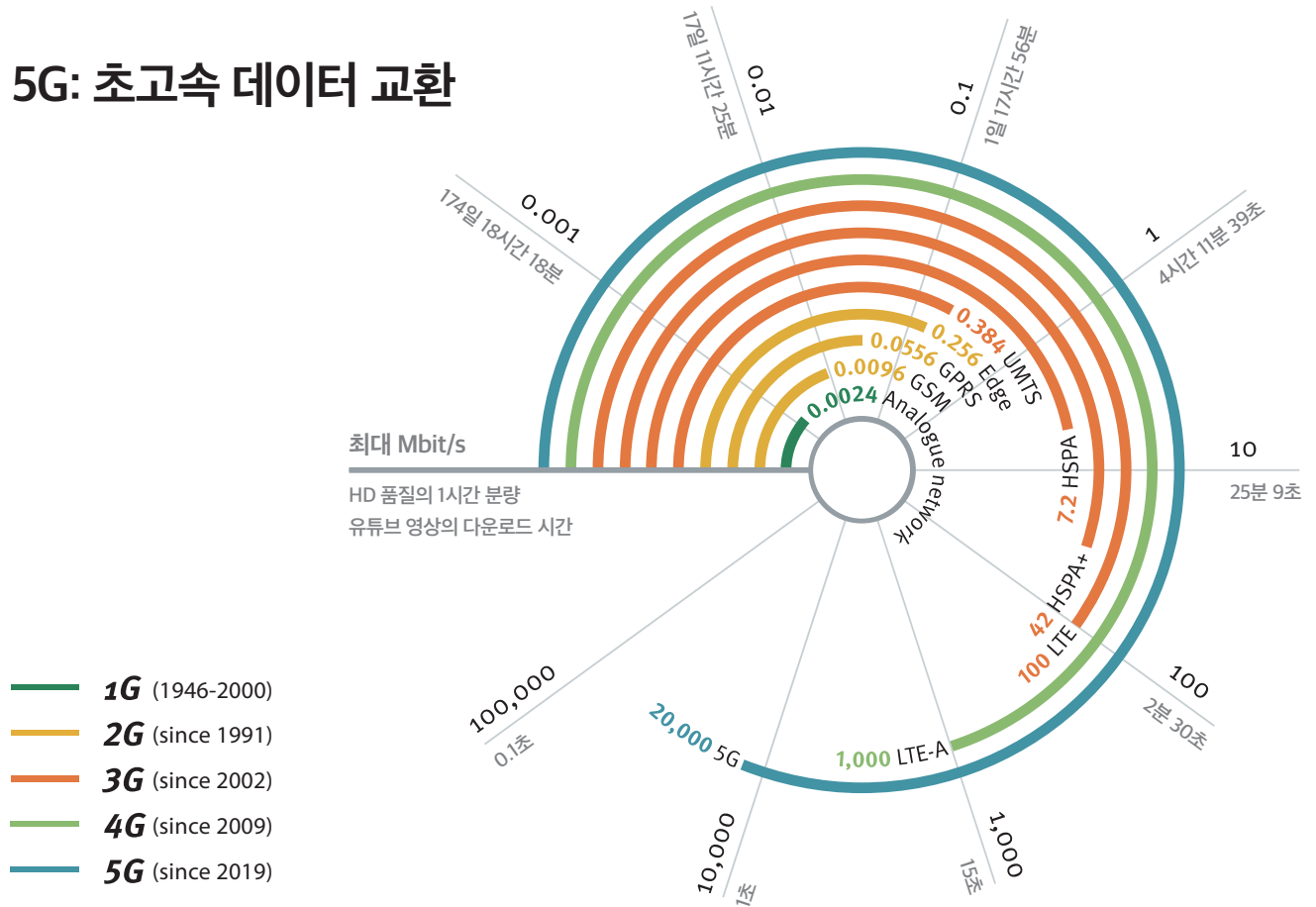
1908년에 미국의 발명가인 네이션 스텐블필드(Nathan Stubblefield)가 특허를 받은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전화를 건다'는 아이디어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법과 같은 말이었다. 무선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라디오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켄터키 출신의 실험적 발명가는 긴 안테나 구조와 자기 유도 현상을 사용하여 전화기 사이에서 무선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스텐블필드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 발명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였을 때 사기꾼이라는 비웃음을 받았다. 그의 특허는 점점 잊혀져 갔다.

**오직 VIP만을 위한 이동통신**

하지만 1926년에 함부르크와 베를린 사이를 오가는 기차에서 승객들은 독일제국우편(Deutsche Reichspost)이 제공하는 최초의 열차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열차의 두 개의 화장실은 열차 내 통화를 위한 공중전화로 개조되었다. 1946년에는 세인트 루이스와 시카고에서 자동차 전화(카 텔레폰)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소형 차량에 맞는 가격과 트렁크를 가득 채우는 크기의 이 장치는 처음에는 독일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와 같은 정치 지도자나 재계의 거물에게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VIP라 할지라도 통화는 짧게 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만 했다. 예를 들어 독일 A네트워크의 모든 연결은 겨우 3분이 지나면 차단되었다. 텔레콤 운영사인 우편국은 긴 통화를 금지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채널은 매우 희소하였다. 최초의 아날로그 네트워크에서 무선 전화를 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루한 것이기도 했다. 외부에서 전화를 건 사람은 그들이 통화하려는 사람이 어느 셀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만 했으며, 연결을 차단하지 않고 셀 사이에서 핸드오버(handover)를 하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이 흘러서야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크로스보더 로밍은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 이동 통신은 디지털화되었다. GSM 표준은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모빌리티를 제공하였으며,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이것은 인터넷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초창기에는 느린 WAP 표준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함). 2007년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은 디지털 유목민

# 5G: 초고속 데이터 교환



(digital nomad)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었다. 전 세계의 창조적 전문가들과 프로그래머들은 칸막이 사무실을 벗어나, 발리의 해변 술집이나 5번가의 커피숍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부터 에베레스트 산도 무선전화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었다. M-Pesa와 yuCash와 같은 서비스는 아프리카와 같이 은행을 사용하기 힘들거나 관련 비용이 너무 비싼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모바일 결제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모바일 통신 덕분에 지상 통신선과 일반전화가 드문 지역에서도 통신의 측면에서 시류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 5G가 500억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하다

2009년에는 스톡홀름과 오슬로에서 최대 100 Mbit/s의 전송 속도를 가진 LTE(Long Term Evolution)의 성공 스토리가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대한민국, 스위스에서는 최대 20 Gbit/초의 속도의 5세대 모바일 통신(즉 5G)이 출시되었다.

현재 5G는 주로 상업적인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4차 산업 및 농업 혁명(Industry & Agriculture 4.0), 물류 또는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2019년에 카탈루냐의 의사들은 5G를 통해 처음으로 암 수술을 실시간 스트리밍하였다. 미래에는 전 세계의 전문의들이 수술대에서 가상으로 자문을 제공받고, 이를 통해 환자(예를 들면 세계의 외딴 지역의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와 안정적인 연결은 자율주행 또는 전체 공장 시설의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건물의 3차원 건설 계획을 현장에서 자신의 스마트 안경에 바로 투사할 수 있다. 함부르크 항에서 이루어진 시험에서는 눈이 수신한 감각적 인상과 균형 감각 사이의 시간 지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시뮬레이터 멀미를 5G를 통한 준-실시간 전송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2년까지 50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서로 연결될 것이다. 기차에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차 자체가 모바일 기기에 의해 무선으로 제어되는 오늘날의 세상을 보았다면 발명가 네이션 스타버필드는 매우 감격하였을 것이다.

5세대 이동통신(5G)은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최대 20 Gbit/s)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한 자릿수 밀리초 길이의 짧은 지연 시간(latency)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G에서는 고도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므로 실시간 응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5G는 모빌리티에 활용하거나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량이나 원격 조종 항공기 등)정밀 로봇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원격수술도 저지연성 이동통신에서만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와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하나로 통합한다.

놀랍게도 2018년이 되어서야 2G 보다 더 많은 4G가 연결되었다(시장의 43% 점유, 34억 개의 연결).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51억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 계약을 맺었다.

최대 4 Gbit/s의 데이터 전송속도 가진 이동통신은 원격지에도 고속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점점 더 성능이 강력해지는 휴대폰과 네트워크는 이동통신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2009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00 명의 인구 당 한 대의 휴대폰이 추가되면 0.8 퍼센트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클라우드-기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스템과 통신을 주고 받는다. 차후의 모든 데이터 프로세싱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고성능 컴퓨터 없이도 모든 머신이 스마트하게 될 수 있다.

고수익 사업: 2018년에 이동통신(기술/서비스)은 전세계 경제에 미화 3,900조 달러(4.6%)에 달하는 기여를 하였다.

휴대폰을 통해 항상 제공되는 인터넷 연결 덕분에 1999년부터 모바일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이메일 기기는 블랙베리 8500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5G 확장에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놀랍게도 2018년이 되어서야 2G 보다 더 많은 4G가 연결되었다 (시장의 43% 점유, 34억 개의 연결).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51억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 계약을 맺었다.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로컬 5G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도 5G를 보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네트워크 운영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될 것이다.

5G since 2019

4G since 2009

2001년부터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광대역 표준은 다시 한 번 인터넷을 이동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었다. 온라인 뱅킹 서비스는 좋은 출발을 보였으며 이동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 덕분에 비디오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셜 네트워크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더 작고 저렴한 휴대폰, 더욱 뛰어난 통화 품질과 더 낮은 통화요금은 디지털 무선 통신이 전 세계적으로 약진하는데 보탬이 되었다.

로밍의 방해 요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는 900 MHz와 1,800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미국은 850 MHz와 1,900 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따라서 오직 쿼드-밴드 폰만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1996년에 제너럴모터스는 자동차 비상 호출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온스타(OnStar)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Car-to-X 커뮤니케이션을 출시하였다.

1999년에는 이동 통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비상 전화를 걸 수 있는 더욱 유용한 수단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폭력 범죄율이 하락하였다는 미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40년대와 5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최초의 아날로그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디바이스의 가격은 높았고, 분당 통화료 또한 비쌌으며, 수신기는 슈트케이스 크기였고, 통화는 전화교환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통신 방식: 1993년에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 메시지 서비스)에 의한 최초의 문자가 전송되었다. 최초의 메시지는 160 글자로 제한되었다.

이동 통신이 디지털로 변화하였다. 유럽은 전세계적으로 2G 네트워크 확장을 주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휴대폰 제조업체의 본산이기도 하였다.

**3G**  
since 2002

**2G**  
since 1991

**1G**  
1946-2000

MOBILE COMMUNICATIONS  
AS PART OF THE BIG PICTURE



저자 소개

로렌츠 스테인케 박사는 IT 저널리스트로서, 오랫동안 모바일 통신에 대하여 저술하였다. 그의 첫 번째 휴대폰은 노키아 PT 111이었다. 지금도 그는 종종 이 제품의 전설적인 견고함과 놀라운 배터리 지속시간을 다시 한 번 경험하기를 바란다. 대략 236그램(8 온스)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 제품은 당시로서는 매우 가벼운 제품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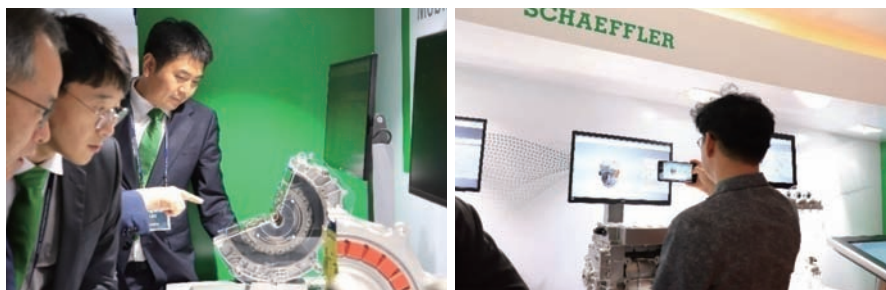
# HIGHLIGHT NEWS

2019. WINTER. vol 59

## HKIPC (현대-기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 참가



지난 10월 세플러는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개최된 현대-기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 (HKIPC)에 참가했다. 한국 굴지의 자동차 완성 업체이자 세플러 그룹의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파워트레인 컨퍼런스 HKIPC에는, 200개가 넘는 자동차 OEM 및 부품 업체 그리고 관련 단체의 1,300명 이상의 참석자가 함께 했다. 행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파워트레인 기술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세플러는 Plenary session 에서 'Schaeffler Solutions for the sustainable Mobility for tomorrow' 주제와 Technical Session에서 각 두 가지의 주제 (엔진/트랜스미션)를 발표해 이목을 이끌었다. 메인 발표장 앞에 위치한 세플러 부스에는 이를 동안 약 930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했다.



## 양회완 노조 지부장, 산업포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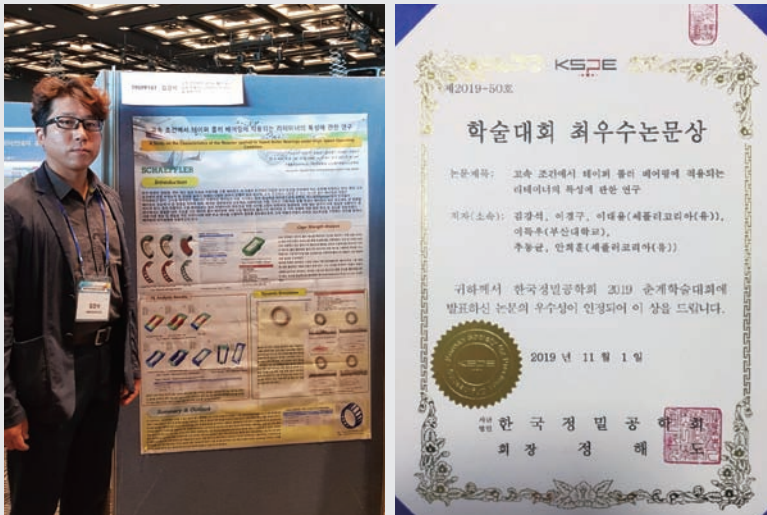


양회완 노조 지부장이 '2019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를 발굴 및 포상하는 제도다. 수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장관표창, 총리표창, 대통령표창, 산업포장, 산업훈장의 순으로 포상한다. 양회완 지부장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직원 복리후생 확대, 근로 환경 개선,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등 상생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지부장은 2001년 제 9대 지부장을 시작으로 2006년, 2009년, 2018년까지 전주공장 최초로 4번에 걸쳐 지부장을 역임했다. 노사 간 소통 강화와 인력 운영 개선을 통해 1995년 이후 한 명의 구조조정 없이 고용 유지 및 생산성 달성, 전주공장을 무분규 사업장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2001년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양 지부장은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 상생협력 등 올바른 노사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9년 춘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 테크놀로지의 김강석 수석연구원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은 고부하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고속 조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지(리테이너)의 강성 및 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한 요소 해석 및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관한 것이다. 케이지의 동적강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재료에 따른 고속에서의 케이지 작동 특성을 분석해 고속 작동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 특성을 구현하는 인자를 찾아 고속용 테이퍼 롤러 베어링의 케이지 최적 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경영설명 영상’을 통한 현황 공유

올해는 경영 설명회를 대신해 전 사원에게 ‘2019년 경영설명 영상’이 제작·발표되었다. Part 1에는 셰플러코리아의 경영현황과 전략, 그리고 이에 관련된 CEO 메시지가 소개되었고, Part 2에는 각 사업부의 임원들이 사업부 별 현황과 전략을 소개했다.



## Global Branding, 새 옷을 입히다

지난해 진행되었던 Global Branding - Phase 1에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Global Branding - Phase 2가 실시되었다.

그룹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오래된 간판들은 떼고, 대신 새로운 간판, Pylon 등이 설치되었다. 이번에는 구로 사무소를 시작으로 전주공장 및 창원외의 세 공장에서 공사가 시작됐고,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다.



## 2019 Distributor's Day

지난 10월에는 산업기계 사업부에서 Distributor's Day 행사를 가졌다.

특히 행사에서는 18개 대리점의 대표가 창원공장을 방문해, 최근 투자가 이루어진 혼다 CVT 라인, 코팅 라인과 3공장 고정밀 베어링 라인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창원공장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전주공장, '2019 전 직원 한마음 단합 행사'

지난 11월 25일에는 전주공장에서 '2019 전 직원 한마음 단합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이 함께 한 건지산 산행과 산행 후 식사 및 행운권 추첨으로 이루어졌다. 전주공장 임직원이 함께 한 이번 산행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팀워크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MAZDA Quality award 수상

세플러코리아는 고객사인 MAZDA로부터 Quality award를 받게 된다. 시상식은 2020년 1월 29일, 히로시마에 위치한 MAZDA 본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상은 6개월 이상 무결점(Zero defect)을 달성해야 수상 대상이 된다. 세플러코리아는 SKC 부분에서 13개월 무결점(Zero defect)을 달성했으며, 기본 요구 조건인 6개월을 제외한 6개월 연속 무결점 감사장 대상 협력사에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부품 선진국인 일본 시장 개척'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품질 기준이 높은 일본 고객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실적은 향후 당사가 유럽 등지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판매망을 다변화함에 있어 유용한 포트폴리오로 활용 될 것이다.

# 2020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준비합니다.

<세플러+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듣고

더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와 세플러인을 잇는 가장 원활한 소통창구 <세플러+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Mail Box

세플러코리아 사보 <세플러+원> 겨울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세플러+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보내주세요.  
사보에 적극 반영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엽서 보내는 방법

1. Mail Box 사진을 찍어서 응모하시는 분의 소속(가족인 경우, 우리 회사 임직원의 소속)과 연락처를 minyje@schaeffler.com(커뮤니케이션&브랜딩 민유정 과장 앞)으로 보내주세요.
2. 큐알코드를 찍으면 메일이 나옵니다. 메일에 적어 보내주세요.

● 겨울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칼럼과 아쉬움이 남는 칼럼은 무엇인가요?

---



---



---

● **참여 신청란** 2020년에도 사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됩니다. 동료 또는 팀과 함께 출연하고 싶다면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



---

### 독자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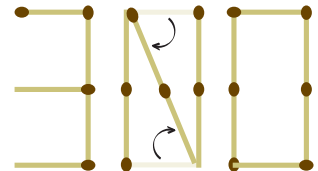
뇌가 색시한 남녀들이 푸는  
((( 뇌섹남녀문제 )))

Q. 플라스틱으로 만든 두 개의 숫자 0, 6이 있다.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이 문제는 사고력을 높여주는 문제입니다. 숫자가 입체라는 점을 고려해 생각해 보세요.)

06

### 가을호 정답

성냥개비 두개를 움직여 1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돌려서 보면 ONE(원, 1)이 됩니다.



### 엽서 당첨자

- 장강욱 (품질시스템)
- 손종오 (툴 & 프로토타입 센터)
- 박진호 (소형볼베어링 세그먼트)
- 주윤미 (Communication & Branding 주윤선 가족)
- 이정윤 (품질보증 전주)



● 당첨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디지털 세트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search

select

shop

**검색**

- **선택**

- **구매**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베어링을 찾으세요!!**

<https://ecommerce.schaeffler.kr>

- 4만개의 베어링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쉽고 빠르게 제품의 가격과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원하는 모든 제품을 한곳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제품에 대한 자세한 기술 정보는 보너스(제품 성능, 설계 스펙 - 3D CAD데이터)

**SCHAEFFLER**